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0:00-12:00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주관 | 위성곤 국회의원실, 동물자유연대,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세부 내용 및 순서

| | | |
|------------|---------------------|---|
| 개회식 | | <p>◎ 사회자 : 이길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내빈소개 <p>◎ 개회사 : 위성곤 국회의원</p> |
| 전문가 토론회 | 10:00 ~ 11:10 | ◎ 좌장 : 김성호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 <p>◎ 발제1 : 김정현 (전 한국재활승마학회 이사)</p> <p>"경주마 현황과 복지시스템 과제"</p> |
| | | <p>◎ 발제2 : 필립 샤인 (PETA 정책부 수석 연구원)</p> <p>"The 3% Solution : How the KRA can transform into the international model for racehorse aftercare"</p> <p>"한국마사회가 퇴역 경주마 관리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p> |
| | | <p>◎ 발제3 : 김진갑 부장 (한국마사회 보건총괄담당)</p> <p>"한국마사회 말 복지 사업추진 및 중장기 전략"</p> |
| | 11:10 ~ 12:00 | <p>◎ 패널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조희경 대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박창길 대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김란영 대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고은경 기자 (한국일보 애니로그랩장)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성곤의원입니다.

먼저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동물자유연대,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연구소 관계자분들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성호 교수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관련 이슈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작년에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동물복지 담론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 퇴역마의 복지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 되어온 화두입니다. 퇴역 경주마의 학대와 도축 논란 속에 한국마사회에서는 2014년 말에 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에는 ‘말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말 복지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마에 대한 복지가 실제로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구심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황입니다.

학대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치료, 말 전염병에 대한 방역, 퇴역 후까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복지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경주마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동물권 보장에 있어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경주마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 성 곤

경주마 현황과 복지시스템 과제

김정현 전 한국재활승마학회 이사

경주마 현황 및 복지시스템 과제

2022. 2. 9.
김 정 현

발제자 소개 - 김 정 현



- 1984년 서울 출생
- 1995년 승마 시작 (대구 승마협회)
- 2011년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자격 취득 (2급)
- 2016년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취득 (3급)
- 2011~2013년 승마코치로 재직 (경기도 소재 승마장)
- 2013~2018년 기업 사회공헌팀 재직 (재활승마센터 기획/운영)
- 2015년 미국 재활승마 마필 3두 도입
- 2016~2019년 한국재활승마학회 이사
- 2022년~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미국의 복지시스템 (영국, 미국)
 - 2) 아시아의 복지시스템 (홍콩, 일본)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질문과 답변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더러브렛, 제주마/한라마

목 차



서러브레드 / 더러브렛(Thoroughbred)

영국의 암말과 아라비아 종마의 교배로 탄생한 최고의 경주마

- 단거리 경주를 목적으로 300년간 스피드에 중점을 두고 개량
-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음
- 체고는 160cm, 체중은 500kg 전후
- 작은 머리, 굽은 가슴, 길고 가는 다리의 체형적 특성
- 날렵하고 경쾌한 걸음걸이



제주마



한라마

제주마

제주 천연기념물 제 347호, 제주 재래종

- 제주 농경문화에 크게 기여
- 체고는 110~120cm (포니 사이즈)
- 큰 머리, 굽은 목, 튼튼한 발굽, 용맹스러운 기질

한라마 : 제주마 + 더러브렛 교배종

- 경주용 제주마 부족으로 교배
- 체고는 130~150cm, 작은 사이즈의 더러브렛
- 지구력과 체력이 좋고, 튼튼한 발굽

1. 경주마의 현황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질문과 답변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2022년 1월 27일 기준

목 차

| 전체등록두 수 | | 더러브렛 | | 일반마 | | 제주마 | | 전체등록두 수 | | 더러브렛 | | 일반마 | | 제주마 | |
|------------|--------|------------|--------|-----------|------|-----------|------|------------|------|------------|--------|-----------|--|-----------|--|
| 33,965두 | | 15,021두 | | 11,788두 | | 7,156두 | | 33,965두 | | 15,021두 | | 11,788두 | | 7,156두 | |
| 전일대비 (+22) | | 전일대비 (+12) | | 전일대비 (+2) | | 전일대비 (+6) | | 전일대비 (+22) | | 전일대비 (+12) | | 전일대비 (+2) | | 전일대비 (+6) | |
| 경주용 | 2,639두 | 교육용 | 72두 | 왕도마정(휴양) | 565두 | 경주용 | 732두 | 왕도마정(휴양) | 904두 | 경주용 이외 | 5,520두 | | | | |
| 승용 | 4,917두 | 시험용 | 27두 | 불명 | 435두 | | | | | | | | | | |
| 번식용 | 2,866두 | 관상용 | 17두 | 기타 | 80두 | | | | | | | | | | |
| 승용번식 | 34두 | 왕도마정 | 3,369두 | | | | | | | | | | | | |

- 전체 마필 33,965두 중 더러브렛 종 마필 15,021두 (전체의 약 44%)
- 제주마를 제외한 전체 마필 26,809두 중 더러브렛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
- 그러나, 대부분의 승마장에서 워블러드(승용마), 포니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마필이 더러브렛
- 서울경마공원 1,306두 (국내산마 1,094두 + 외국산마 212두)
- 부산경마공원 847두 (국내산마 744두 + 외국산마 103두)
- 제주경마공원 871두 (제주마 732두 + 일반마 중 경주용 139두)
- 2010년 이후, 퇴역 경주마 17,298두 (서울 10,090두 + 부산 7,208두)
- 퇴역 경주마 중 한국마사회 승용조련프로그램 인증 마필 14두 (0.08%)

1. 경주마의 현황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질문과 답변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한국일보 PICK 16면 TOP 2022.01.13. 네이비뉴스

죽어라 달렸어도 다지면 도둑... 경주마는 살고 싶었다

2019년 제주도 내 경주마 실재 폭로에 이어졌던 필립 사인 배아 정채부서 수석 연구이사는 한국일보에 "한국에서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번식시키고 있다"며 "이는..."

세계일보 PICK 1면 신 네이비뉴스

까미가 알린 퇴역 경주마 현실... 사라진 말들은 어디로 [이슈+]

퇴역 경주마 '까미', KBS 드라마 촬영 중 사망 평균수명 25~30년... 평균 6세에 경주마 은퇴 퇴역 이후 40%만 '재활용'... 절반가량은 도축 사육-동물자유연대 제공 ...

한국일보 PICK 16면 1면 1월 1일 신 네이비뉴스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일파만파... "통틀 이용 어디까지 용인해야 ..."

한편 낙마 장면이 등장한 말이 퇴역 경주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확인 결과..."

한국일보 PICK 4면 신 네이비뉴스

42%만 살아서 촬영장, 승마장으로... 퇴역경주마 잔혹사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는 퇴역경주마 '넷사료화' 방안을 검토했다 1가 농로단체...

2019년 제주 경주마 도축 실태고발 (PETA)

제주이소리 2022.01.04

"퇴역 경주마 활용 사료공장 계획 철회 환영"

생명환경운동연합제주지부(제주동물권연구소, 동물자유연대)는 4일 생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의 퇴역 경주마를 이용한 대규모 반계동물 사육 공장 계획 철회를 환영..."

"퇴역 경주마 활용 사료공장 철회 환영" 제주이소리 2022.01.04

제주동물보호단체 "퇴역 경주마 활용 사료공장... 에드러인제주 2022.01.04

제주 퇴역 경주마 활용 사료제작 계획 철회

드라마 촬영 후 갑작스러운 죽음

- 퇴역신청시 승마로 전환비율
2018년 약 33%, 2019년 약 34%,
2020년 약 33%, 2021년 약 31%
- 나머지 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승마장으로 간 말들은 잘 살고 있을까?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중국,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1)

경주마 "기쁨(가명)"이 이야기

갈색, 거세마, 국내산마, 경주성적 19전(1/2/1/0/3), 수득상금 29,087,000원



- (0세) 2004년 3월, 제주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태어남
훈련 중 부상/경주 부적격 사유로 폐마 되는 마필은 전체 생산의 약 20~30%
- (2세) 2006년 7월, 서울경마공원에 입사
- (2~6세) 총 19회 경주 출전, 동일 기간 진로 81회, 외부 목장에서 휴양 11회
경주/훈련 중 치명적인 부상으로 폐마 연 100여 마리
(생산두수의 절반 가량이 3세까지 살아남음)
- (6~8세) 경주마 퇴역 후 경기도 소재 승마장에 100만원에 팔려옴
적절한 재활화와 프로그램 없이 승마장으로 투입되어 승마회원 2명에게 골절상
반년 넘게 마방에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물 배움
장애물 경기가 가능한 마필이라는 이유로 다른 승마장에 1,000만원에 팔림
- (8~10세) 무리한 장애물 연습으로 반복된 골절, 다시 방치
- (10~14세) 지방 교육기관에 혈값에 팔렸으나, 파행을 이유로 다시 방치
- (14~16세) 지방 허름한 승마장에서 체험승마 마필로 사용
- (16세) 확인할 수 없는 어딘가로 팔려가 폐사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중국,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경주마 “승리(가명)”의 이야기

갈색, 거세마, 외국산마, 경주성적 37전(18/5/2/4/4), 수득상금 1,016,462,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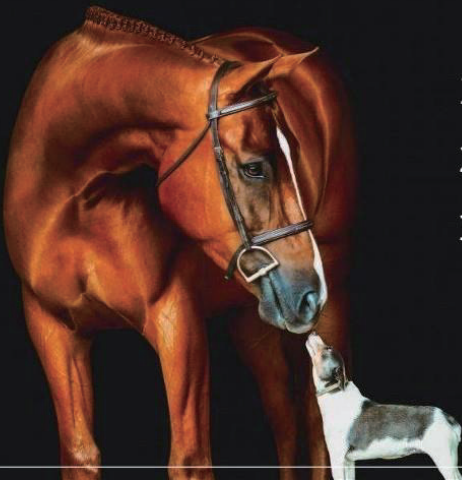


- 국내 최정상급 명마! 그랑프리 대회 / 대상 경주 우승마!
- 2년 연속 경마 팬이 뽑은 최고의 말! 수득상금 10억!
- (0세) 2000년 3월, 미국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태어남 (명문 혈통의 후손)
- (4세) 2004년, 미국에서 수입된 뒤, 서울경마공원에 입사
- (4~10세) 외국경주까지 총 51회 경주 출전, 19회 우승
- 동일 기간 진료 290회, 외부 목장에서 휴양 4회
- (10~15세) 경주마 퇴역 후 경기도 소재 허름한 승마장, 구석 마방에 방치
- 우연히 이를 발견한 경마 팬들이 마사회에 항의
- (15세) 몇 달 후, 갑작스러운 산통(배앓이)으로 폐사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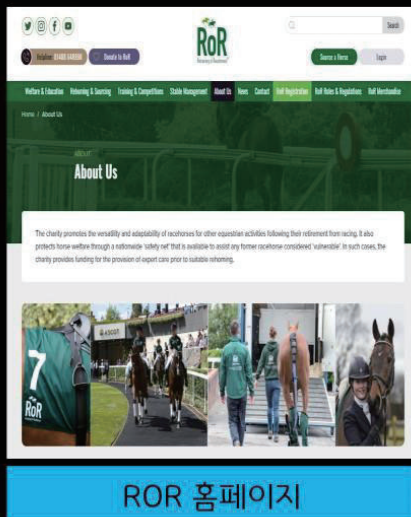
- 1) 유럽/미국의 시스템 (영국, 미국)
- 2) 아시아의 시스템 (홍콩, 일본)
- 3) 우리나라의 사례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1-1) 영국의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영국 퇴역경주마 재훈련 단체 ROR (Retraining of Racehor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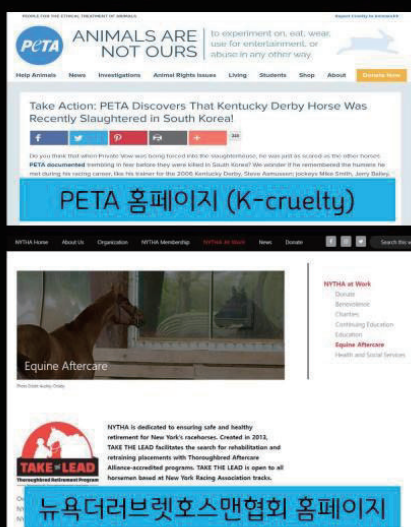
- 2000년 4월, 영국경마협회 기금으로 창설
- 경마산업 수입 및 후원으로 운영자금 마련
- 은퇴한 경주마가 목장/승마장/마주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Rehoming/Education)
- 퇴역경주마의 복지와 승용마로 전환시키는 것에 필요한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
- 영국의 가장 유명한 두 경마기수가 명예대사
- 궁극적인 목적은 퇴역경주마의 숫자와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얻는 말의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중국,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1-2) 미국의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다양한 미국의 퇴역경주마 보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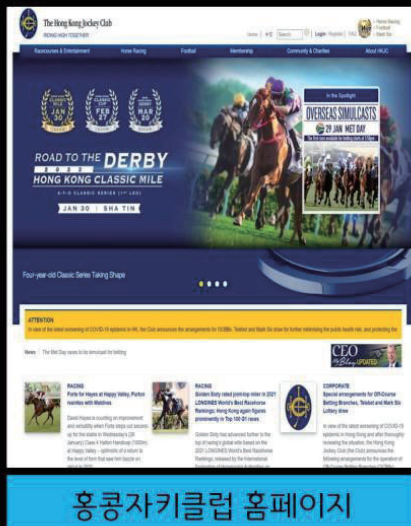
- PETA, Humane Society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적극적인 경주마/퇴역경주마 보호 활동
- 뉴욕주경마협회(NYRA), 뉴욕더러브렛호스맨협회(NYTHA)는 퇴역경주마 복지를 위한 경마수수로 부과
- 퇴역경주마를 위한 기금은 퇴역경주마를 인수하고, 부상을 치료하는데 활용
- 특이한 점은 경마 조교사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것
- 연간 백만달러의 기금마련이 목표
- 승용마로 재사회화된 퇴역 경주마만 참가할 수 있는 승마대회가 연 350회 개최, 상금 10만 달러
- 퇴역경주마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경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공통된 인식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중국,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2-1) 홍콩의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퇴역경주마의 천국, 홍콩 자키클럽 (HKJC, Hongkong Jockey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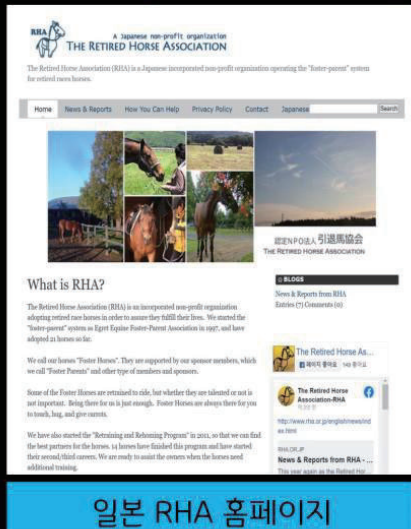
- 1,100여 두의 경주마 중 퇴역하는 말은 소수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선진화된 퇴역 경주마 관리시설 BREC (Beas River Equestrian Centre)
- 은퇴한 말은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통해 향후 재사회화 방향을 결정
- 공인된 전문가 집단이 퇴역경주마의 정신적/신체적 재활을 단계적으로 수행 → 승용마
- 은퇴한 경주마의 소유권 이전 (마주—HKJC) (말 복지를 침해하면 즉각적인 개입/몰수조치)
-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HKJC 직원들 (매년 직업선호도 조사에서 상위랭크)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2-2) 일본의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퇴역경주마의 새로운 삶을 위한 일본 민간단체의 노력



- 국내 경마산업 관계자의 롤모델인 일본경마
- 연간 7,000두의 경주마 생산, 6,500두 폐마
-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의 구마모토 경주마 도축장 고발사건 이후 큰 파장
- 일본중앙경마회는 퇴역경주마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퇴역경주마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목장을 지원하기로 함
- 1) Yamanashi Horse Bridge는 연간 100여 마리의 퇴역 경주마를 승용마로 재사회화
- 2) RHA (the Retired Horse Association)은 퇴역 경주마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말을 구조하고, 재교육 후 승용마로 활용하거나 보호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3) 우리나라의 사례

퇴역경주마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지 못한 개인 마주들의 선택

- 경마산업이 건강하게 자리잡은 국가에서 ‘마주’는 명예로운 위치
- 국내 사행산업의 대표이자 도박중독, 말 학대, 비리 등 불명예를 안은 한국마사회의 마주들은 경주마를 소유하는 일을 고민하고, 점차 포기
- 아끼던 경주마가 은퇴하게 되자, 사비를 활용해서라도 끝까지 돌보는 마주들의 사례 소개
 - 1) 흰둥(가명)이 마주
: 마주는 흰둥이의 팬들과 함께 자비로 은퇴식 마련, 흰둥이 치료 및 돌봄 지속
 - 2) 쾌걸(가명)의 마주
: 쾌걸이가 은퇴 후 씨수말로 활동하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노후까지 책임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3) 우리나라의 사례

퇴역경주마의 처우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 경기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축장으로 보내진 ‘케이 프매직’, 부상을 이유로 도축된 ‘승자예찬’, 3살의 어린 나이에 고기로 팔린 ‘탐라여신’
→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의 고발, 시민들의 분노
- 정기적인 ‘도축장 가는 길’ 개최
 - 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동물자유연대와 시민참여
 - 퇴역 경주마의 삶(생존권)이 보장되기를 염원
 - 제주 렛츠런파크에서 말 도축장인 제주축산농협 육가공 공장까지 8km를 걷는 ‘행동’
- 이권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도축장 가는 길’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경마산업, 말과 사람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동물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목 차

세계적인 변화흐름

- 국제동물보호단체의 경고 (제주경주마 도축장 고발)
- 캐나다 경주마 수출기업이 한국에 수출 금지
- K-cruelty (국격의 하락)
-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달라진 시민의식

- 반려동물 가족 1,500만
- 높아진 동물복지 감수성
-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건수 증가
- SNS를 활용한 즉각적인 제보, 여론 형성
- 드라마 촬영에 활용된 마필의 사망에 따른 공분

자성의 목소리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고발/기소를 당하는 관계자
- 경마산업 종사자/관계자의 자긍심, 자부심의 하락
- 마주들의 회의감 증가
- 직원들과 경주마의 여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국내/외적 압박

조직내/외부적 부담

경마산업의 위기

생각의 전환
upside ↔ down

경마산업, 말과 사람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

사람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경마산업으로 도약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경주마 처우개선 / 지속가능한 경마산업을 위한 윤리적 가치 고심

임직원/관계자의 지지

↑ ↑ ↑
동물보호법의 적극적 준수,
작업환경 개선, 직원복지 및
경주마 처우개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종사자
의 자긍심 고취

시민들의 응원 애정과 관심

↑ ↑ ↑
시민들의 관심을 애정으로
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방법 모색
(예. 시민마주, 결연후원 등)
경마=도박 → 레저스포츠
인식변화 유도

K-동물복지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

↑ ↑ ↑
경제논리의 단순한 적용대신
거시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주마/퇴역경주마의
한국형 전생애 복지모델 구축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말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언젠가 오길 바랍니다.

목 차

1. 경주마의 현황
 - 1) 경주마의 종별 특징
 - 2) 우리나라 경주마 현황
 - 3) 경주마의 삶과 죽음
2. 경주마 복지시스템
 - 1) 유럽(영국, 미국)의 시스템
 - 2) 아시아(홍콩, 일본)의 시스템
 - 3) 우리나라의 사례
3. 경주마의 두 번째 기회 (제언)
- ◎ 질문과 답변

The 3% Solution :
How the KRA can transform into the international
model for racehorse aftercare

3% 솔루션 :
한국마사회가 퇴역 경주마 관리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

Philip Schein

(Senior Director of Research in the policy department for PETA)

The 3% Solution:

3% 솔루션:

How the KRA can transform into the international model for racehorse aftercare.

한국마사회가 퇴역 경주마 관리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

Philip Schein (Senior Director of Research in the policy department for PETA)

Good morning. I'm Philip Schein, Senior Director of Research in the policy department for PETA, which has 9 million members and supporters worldwide.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900 만 회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PETA 의 정책부서 수석 연구원 필립 샤인입니다.

I was one of the undercover investigators who documented the abuses at Korea's largest horse slaughterhouse which is why I'm wearing a mask.

저는 한국 최대규모의 말 도축장의 학대 상황을 기록했던 잠복 수사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I went to Jeju four times over 16 months to conduct this investigation.

이 조사를 위해 16 개월에 걸쳐 4 번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On the positive side, by going to Jeju so much I got to go many times to eat vegetarian Temple food at Dasoni, my favorite restaurant.

제주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부터 말하자면, 가장 좋아하는 채식 사찰 음식점 다소니를 여러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입니다.

But PETA's investigation of the Jeju Livestock Cooperative, owned by Nonghyup, exposed the disturbing side of Jeju.

그러나 농협 산하기업인 '제주 축협'을 조사하면서 제주도의 불미스러운 면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As you know, PETA documented cruelty and other crimes.

이미 알고 계시듯 PETA에서는 제주도의 말 학대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기록했습니다.

This resulted in convictions for killing horses in front of other horses in violation of Korea's Animal Protection Act.

그 결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도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One of the horses we filmed at the slaughterhouse, Cape Magic, arrived with a bandage on his leg from an injury in Busan just three days prior.

도축장에서 촬영한 말들 중 '케이프 매직'은 부산에서 경마 중 부상을 당해 다리에 붕대를 감은지 3 일 만에 도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Since he still had drugs in his system when he was killed and processed into meat, this led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restricting the killing of racehorses for human consumption.

'케이프 매직'은 도축 및 가공 당시 체내에 약물이 잔류하고 있었으며, 이는 식용을 위한 경주마 도축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The YouTube video of our investigation, titled "K-Cruelty," went viral causing international outrage.

'케이-크루얼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우리의 영상은 큰 이슈가 되었고 국제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To date, the case has generated at least 600 newspaper articles, TV, and radio news stories.

이 사건은 최소 600 건의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The KRA suffered damage to its reputation as the world looked at the Korean horse racing industry as a "butcher shop."

국제사회가 한국의 경마산업을 '정육점'이라고 평판하며 한국마사회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When Knicks Go won the Breeders' Cup Classic last November, an activist infiltrated the winner's circle with a message to the KRA to "stop turning racehorses into dog food" which was broadcast on US national television.

‘닉스 고’라는 말이 브리더스컵 클래식 경마에서 우승을 했던 지난 11 월, 경마장에 잠입한 동물권 활동가 한 명이 한국마사회를 향해 “경주마를 개사료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든 모습이 미국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But my purpose today isn’t to continue to criticize or embarrass the KRA.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국마사회를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Rather, I’m proposing a simple financial solution, which can be the blueprint for how Korea can transform from “K-Cruelty” into the international model in racehorse aftercare.

간단한 재정적인 방법으로 한국이 “케이-크루얼티”에서 “국제적인 퇴역 경주마 사후관리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To fix the problem, it’s essential to know how the problem was created. We need to go back to the beginning, literally.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문제로 돌아가 살펴봐야 합니다.

It’s simple math: Breeding horses and importing so many horses to race and breed is creating this “surplus” of unwanted horses.

문제의 원인은 간단한 산수로 설명됩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번식시키고 번식을 위해 해외 수입을 하면 “잉여” 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This is why PETA’s investigators first went to the KRA breeding farm and top private breeding farm.

PETA 조사관들이 마사회의 번식 농장과 사유 번식농장을 먼저 방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his was Meniffee, at the KRA’s Jeju Stud Farm.

이 말은 마사회 소유 제주렛츠런팜에서 촬영된 ‘메니피’입니다.

This American champion was imported to be a stallion in Korea and quickly became the top Korean breeder.

‘메니피’는 미국 챔피언으로 빠르게 한국 내 최고 번식마가 되었습니다.

He was prolific and sired more than 1,000 foals, contributing to the massive surplus of racehorses in Korea.

왕성한 번식력으로 1000 마리가 넘는 자마를 배출하여 수많은 잉여 경주마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Although he was the pride of Korean breeding and some of his foals were successful, many of Meniffee's foals ended up getting slaughtered.

'메니피'가 한국 말 번식산업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몇몇의 성공적인 자마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메니피'의 새끼들은 도축을 당했습니다.

Here is a partial list of some of Meniffee's offspring who were slaughtered by early 2019.

2019 년 초까지 도축된 메니피 자마들의 목록의 일부분입니다.

PETA filmed one of Meniffee's sons, named Four Star, at the Nonghyup slaughterhouse in February 2019. He had run 44 races in his lifetime, the final one four months before he was killed. He was transported to Nonghyup in a truck with a 2 year old horse who was bleeding from the nose.

2019 년 2 월, PETA 는 메니피의 자마, '포 스타'를 농협 도축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는 일생동안 44 차례 경마 출전을 했으며 도축 직전 4 개월전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그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2 살 정도 된 다른 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농협 도축시설로 운송되었습니다.

Meniffee was forced to continue breeding, even at 23 years old and with a diagnosed heart condition which directly led to his death:

메니피는 23 살이 되어 늙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강제로 번식을 해야 했습니다.

The KRA tried to squeeze everything they could out of him.

한국마사회는 메니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 했습니다.

When Meniffee died, he was given a funeral to show honor and respect for him, in contrast to the disrespect and cruel death of his son Four Star.

'포 스타'에게는 무성의한 취급과 잔혹한 죽음을 겪게 한 반면, '메니피'가 죽은 뒤에는 명예와 존경의 표시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Meniffee and Four Star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메니피’와 ‘포 스타’는 한국 경주마 관리 시스템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This is a vicious “cycle” of breeding to slaughter.

이 시스템은 번식과 도축의 악순환입니다.

When IFAR, the International Forum for the Aftercare of Racehorses, presented a series of seminars in Korea in 2019, they talked about a category of unwanted, retired horses, horses like Four Star, that they labelled “at risk”.

2019 년 경주마 사후 관리 국제 포럼(IFAR)이 한국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을 당시, ‘포 스타’와 같은 처지에 놓인 퇴역 경주마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이러한 말들을 “위기”단계에 있는 말들로 표명했습니다.

But a year ago PETA exposed how even Private Vow – who had run in the 2006 Kentucky Derby – was slaughtered in Jeju when he was no longer productive as a breeding stallion.

그러나 1 년 전 PETA 는 2006 년 켄터키 더비에 출전했던 ‘프라이빗 보우’ 마저 번식마로써 생산성이 떨어져 제주도에서 도축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폭로했습니다.

No horse in Korea is safe, not even high-profile breeding stallions.

한국에서는 번식마들을 포함해 그 어떠한 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The truth is almost all horses in Korea are at risk, or will become at risk, when they are no longer financially useful in racing, breeding, equestrian, or recreational purposes.

한국에 있는 모든 말들은 경마, 번식, 승마, 레저 등의 재정적 이용 가치를 잃자마자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Last November, at the Keeneland Breeding Stock Sale in Kentucky, K.O.I.D, the KRA’s agent, bought 27 mares, and 26 of them were pregnant.

한국마사회의 에이전트 K.O.I.D 는 지난 11 월 켄터키 킨랜드 번식마 거래장에서 27 마리의 씨암말을 구매했으며, 그 중 26 마리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Where will these mothers go when they are no longer wanted as broodmares? And how many of their foals will eventually be slaughtered?

이들을 아무도 씨암말로 원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은 앞으로 몇 마리나 도축 당하게 될까요?

The KRA can't solve this problem by trying to cover up slaughter records.

한국마사회는 도축기록 은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As I mentioned, PETA uncovered documents confirming that famous American stallion Private Vow had been slaughtered in Korea in 2020.

이미 말씀드렸듯, PETA 는 유명한 미국 종마 '프라이빗 보우'가 2020 년 한국에서 도축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But then the KRA tried to hide this evidence by removing it from Private Vow's record.

그러자 한국마사회는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프라이빗 보우'의 기록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This compounded the problems for the KRA.

이는 한국마사회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After learning from PETA that Private Vow had been slaughtered, and that the KRA had then tried to cover it up, The Stronach Group announced a policy that it would not export any horses to Korea:

'프라이빗 보우'가 도축되고 한국마사회가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PETA로부터 전해들은 '스트로낙 그룹'은 한국으로 말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The Stronach Group has enacted a policy that will prevent any racehorses or broodmares owned or bred by our Adena Springs facilities from being sold to South Korea."

"스트로낙 그룹은 그룹 산하 아디나 스프링스 번식시설에서 소유중이거나 아디나 스프링스에서 번식된 경주마 및 씨암말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Instead of deleting records, the KRA needs to do the opposite and be completely transparent about the location and fate of horses after retirement.

한국마사회는 기록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퇴역 경주마들의 위치와 생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Only by implementing and enforcing a system of full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will the public know that all the horses are accounted for throughout their entire retirement.

완전한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적용하는 방법만이 모든 말들이 퇴역 후 인도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Also the KRA can't solve this slaughter problem, by claiming that private farms and slaughterhouses are not under its jurisdiction.

또한, 한국마사회가 사설 농장과 도축시설에 대한 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으로는 이 도축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The KRA tried to defend itself after the Private Vow scandal by saying the horse was owned by a private farm, not a KRA stud farm.

'프라이빗 보우' 사건 이후, 한국마사회는 프라이빗 보우가 한국마사회 소유 농장이 아닌 사설 농장 소유였다는 주장으로 방어를 하려 했습니다.

This excuse made the entire Korean industry look worse. This also gives the KRA the appearance of having no authority or moral leadership.

이 변명은 대한민국 말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더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어떠한 권한도, 윤리적 선도에 대한 지위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했습니다.

When PETA first investigated breeding farms in Korea, we reported the abuse of a mare named Annika Queen who was at Nokwon,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horse breeding farms in Korea.

PETA 가 최초로 한국 번식농장을 조사했을 당시, 저희는 한국내 가장 유명한 사설 번식농장 중 한 곳인 녹원목장에서 '애니카 퀸'이라는 씨암말의 학대를 보고했습니다.

PETA's investigators found Annika Queen suffering from laminitis so severe that she could barely walk, and she appeared to be in significant pain.

피타 조사관들은 심각한 척추염을 앓고 있는 애니카 퀴를 발견했으며,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Adding to her misery, Nokwon made her nurse a second foal in addition to her own--because of her lameness, she wasn't able to push the other foal away.

더욱이, 녹원목장은 애니카 퀴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의 새끼 뿐만 아니라 다른 망아지까지 돌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We alerted the KRA to the situation, but the KRA ultimately claimed they had no authority to intervene with private farms.

저희는 한국마사회에 이 상황을 알렸으나, 한국마사회는 사설 농장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The KRA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as Korea's centralized racing authority, by doing everything in its power to ensure that private owners and breeders who abuse horses will not be permitted to race at KRA tracks.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 중앙 경마 관리 기관으로서 책임을 맡아 말을 학대하는 말 소유주와 번식시설들이 한국마사회 경마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Similarly the KRA tried to absolve itself by arguing that that slaughterhouses are not under its purview; but the KRA should revoke license of owners who send their horses to slaughter (either directly or through middlemen).

말 도축시설 관련해서도, 한국 마사회는 도축시설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축장에 이르게 하는 말소유주들의 경마 참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And the KRA can't solve the problem by making token reforms or paltry investments.

또한 한국마사회는 이 문제를 형식적인 제안이나 무의미한 작은 투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The KRA's current plan to transition 100 to 140 retired horses per year to second careers is insufficient.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퇴역 경주마의 수를 연간 100 마리에서 140 마리로 증가시킨다는 현재 계획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It's inadequate in terms of the number of horses, which is just a fraction of the total number of racehorses "retired" per year.

이는 매년 발생하는 퇴역 경주마 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숫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Even if the KRA reaches its goal of extending this program to 300 to 400 retired per year, it is also insufficient in terms of money per horse.

한국마사회가 이 프로그램을 300 마리, 400 마리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말 한 마리당 배정되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The KRA is allocating USD \$4,000 per horse – paid for equally by the KRA and other stakeholders – and this money is designated for only one year of retraining.

한국마사회는 말 한 마리당 미화 4000 볼을 마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도록 배정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1 년 재훈련의 비용에 그칩니다.

Horses can live to 30 years old, so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for these horses for the majority of their remaining years.

말들은 30 세까지 살 수 있어, 퇴역 후 경주마들의 남은 생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자금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pounding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horses fail their retraining as recreational riding horses.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말들이 승마용으로 재훈련을 받는데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And even retired racehorses who are used for breeding and equestrian sports, have a limited time in these second "careers" before they are considered unproductive.

또한, 번식용 또는 승마용으로 전환되는 퇴역 경주마들조차 그들의 '두 번째 직업'에서도 쓸모 없는 말로 취급되기까지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A successful aftercare program, therefore, must not be limited in scope to retraining alone.

그러므로 퇴역 경주마의 관리 프로그램은 재훈련이라는 1 차원적인 범위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It must encompass the entire life of ALL horses.

모든 말들의 전 생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As it is currently structured, the KRA's aftercare program is doing little to slow the rate of slaughter.

한국마사회의 현재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은 도축율을 낮추는데 아주 작은 기여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6 horses were killed in November 2021, and 1,151 horses were slaughtered in 2021 through November, on pace to be one of the highest yearly totals since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posted these figures.

2021 년 11 월 156 마리의 말들이 도축 당했고, 2021 년 1 월부터 11 월까지 1151 마리의 말들이 도축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 두수를 게시한 이후 연간 최다 도축기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solution though.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The problem, as we discussed, comes down to simple math: breeding too many horses and importing too many horses.

이미 언급했듯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산수로 축약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말이 번식되고 수입되고 있습니다.

The financial solution is also simple math.

재정적 해결책도 간단한 산수로 축약됩니다.

It starts with allocating 3% of prize money to aftercare. The 3% would equal more than USD \$5 million (5 billion Korean won) per year.

이는 상금의 3%를 퇴역마 관리에 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금의 3%는 연간 미화 5 백만불(50 억원)에 달합니다.

Why should this be paid for with a percentage of prize money?

왜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을 상금의 일부분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It's money the horses have earned.

이 상금은 말들이 벌어들인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This 3% is even less than the jockey's standard 10% share of the prize money.

이 3%는 기수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표준 상금의 10% 보다는 작습니다.

The horses have earned their share of the prize money with their blood and sweat, being whipped to exhaustion and involuntarily risking their lives in every race.

말들은 피와 땀을 흘리고 극한 피로를 겪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매 경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그들의 몫을 배정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One reporter for the Korean racing news site horsebiz.com stated that “in horse racing **70%** of the abilities of the animals and 30% of the abilities of the humans is used to determine the outcome.”

Steven, here is the source for that quote if that helps to see it in the original Korean: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88>

말산업저널의 한 기자는 “경마는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 선수)의 능력을 30%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m recommending only a 3% share of the prize money.

저는 상금의 3%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This is owed to the horses for their labor.

이 금액은 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It is, therefore, not a charitable donation, and it should not be optional. It would be comparable to an employer's pension plan.

그러므로 이는 자선적인 기부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말들의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cost of not allocating 3% of prize money would be catastrophic.

상금의 3%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The KRA needs to repair its image of being cruel and indifferent to retired racehorses or it will lose its “social license” and subsequently lose business, such as what happened at

SeaWorld in the US; and it will risk going extinct, as happened to the Ringling Bros. Circus in the US.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들을 무책임하고 잔혹하게 취급하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윤리적 허가”를 잃고, 그에 따라 미국의 씨월드 사례와 같이 사업이 위축되고, 결국 미국의 씨커스 단체 링글링 브라더스처럼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In the McKinsey Report survey, presented at the US Jockey Club Roundtable in 2018, the results were startling:

2018 년 미국 기수클럽 토론회(U.S. Jockey Club Roundtable)에서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는 놀라운 설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Public perception of the sport was ominously low. Only 22% of the general public had a positive impression of the sport and “over 50% of casual fans would stop betting if they knew horses were mistreated.” In the survey of the entire fan base, the top concern was “treatment of horses after retirement”.

경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불길하게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중의 22%만이 경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50%가 넘는 팬들은 말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베팅을 중단하겠다”는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The 3% of total prize money towards retirement would position the KRA to be the international model for long-term aftercare funding.

총 상금의 3%를 퇴역 후 관리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마사회는 장기적 사후관리 투자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Racing Victoria in Australia announced a similar commitment of a minimum of USD \$17 million over the first three years towards retirement services, including 2% of prize money.

호주의 ‘레이싱 빅토리아’는 최초 3 년간 상금의 2%를 포함하여 최소 금액 미화 1700 만불을 퇴역마 관리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nd the CEO of Racing New South Wales in Australia announced that “every racehorse deserves a home” and committed to funding an aftercare plan for racehorses that will start off with an investment of 1% of prize money for retirement and rehabilitation.

레이싱 뉴스우스 웨일즈의 대표이사는 “모든 경주마가 살 곳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퇴역 및 재활을 위해 상금 1% 투자로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hose are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recommended 3% of KRA prize money would set the highest standard for the world.

이 사례들의 방향도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3%를 한국마사회가 수용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퇴역마 관리 계획 표준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This would go beyond to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and rehabilitate KRA's image in the process.

이 방안은 다른 나라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의 이미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This 3%, however, should not be the final contribution to the retirement fund.

한편, 최종적으로 퇴역자금이 상금의 3%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The KRA should also borrow some of the best ideas from other countries to supplement this total to ensure the safety of all Korean racehorses in retirement.

한국마사회는 다른 나라들의 모범 사례들을 빌려 이 방안을 보충보완하고 모든 퇴역경주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For example, the Hong Kong Jockey Club requires a fee from owners of HK\$80,000 (approximately USD\$10,000) when they bring a horse to Hong Kong, which is then given back to ensure the horse is appropriately rehomed upon retirement.

예를 들어, 홍콩 기수 클럽(Hong Kong Jockey Club)은 홍콩으로 말을 반입할 때 소유주들로부터 홍콩달러 8 만불(미화 10,000 불)을 받아 퇴역 시 적절한 거주처가 마련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합니다.

The Thoroughbred Aftercare Alliance in the US generates funds for retirement through such programs as Jockey Club foal registration fees, and percentages of auction sales and stud fees.

미국의 더러브렛 사후관리 연맹(Thoroughbred Aftercare Alliance)은 퇴역 자금을 기수 클럽 망아지 등록 수수료, 경매 수수료, 교배 수수료로 조달합니다.

I've suggested the 3% financial solution, but the "social license" for the KRA can't be bought by money alone.

저는 3%라는 재정적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한국마사회 사업의 "사회 윤리적 허용"은 금전적인 방법으로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The funding needs to be coupled with a genuine paradigm shift.

자금과 더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개혁이 필요합니다.

When IFAR spoke in Korea, they emphasized:

경주마 사후 관리 국제 포럼(IFAR)이 한국에서 발표를 할 당시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Aftercare is non-negotiable and beyond the commercial and reputational drivers, it is simply the right thing to do.

퇴역마 관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기관의 상업적, 평판적 요인을 넘어 옳은 일입니다.

In other words, aftercare should not be implemented just as a marketing tactic or for damage control.

다르게 말하자면, 퇴역마 관리는 마케팅 또는 이미지 회복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oing this would seem disingenuous and fail to change negative public perception.

이러한 접근은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것이며 부정적인 대중의 인식을 변화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about transitioning these former equine athletes to other "commercial" purposes – such as breeding, or retraining them for equestrian and recreational second "careers".

또한 기존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퇴역 경주마들을 교배, 승마 및 레저 등 다른 "상업적"용도의 제 2의 "커리어"로 재훈련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It must be a lifetime responsibility for all horses, not a select few or for a limited duration.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은 선택된 특정 말들에 제한된 기간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들의 전 생애를 책임져야 합니다.

This requires a shift from thinking about horses in agricultural terms as just “livestock”, and only useful if they are generating money either by their labor or for their meat.

이를 위해서는 말들을 노동 또는 고기로 경제적이익을 창출하는 축산업 내 “가축”으로 여기는 발상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합니다.

Instead, these horses must be thought of more like the majority of the public thinks of companion animals, who do not need a “career” or commercial purpose to justify their lives or justify receiving a lifetime of safety and care.

대중의 인식에 맞게, 말들은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전 생애에 걸쳐 안전과 관리,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Every former racehorse is an individual with a name, life history and personality..

모든 경주마들은 이름, 삶, 그리고 각자의 성격을 지닌 개인입니다.

This sweet horse was KRA # 29451.

이 아름다운 말은 한국마사회 마번 29451 입니다.

Her name was Blue Fantasy.

그녀의 이름은 ‘블루 판타지’였습니다.

She was born in 2007, sired by the Stronach champion stallion Ghostzapper.

2007 년 그녀는 스트로낙 챔피언 종마 ‘고스트재퍼’의 자마로 태어났습니다.

She was sold pregnant at auction at the Keeneland November Breeding Stock Sale in 2011 to the KRA for just \$7,000 and shipped overseas to Korea.

한국마사회는 2011 년 킨랜드 11 월 번식마 거래장에서 미화 7000 불과 운송수수를 지불하고 임신한 상태의 블루 판타지를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In her lifetime, she gave birth to seven foals, including one sired by Meniffee.

일생에 걸쳐 그녀는 메니피의 자마를 포함해 총 7 마리의 자마를 배출했습니다.

She was slaughtered for meat in Korea on August 14, 2019 at age 12 when she was no longer considered profitable as a broodmare.

2019 년 8 월 14 일, 그녀는 씨암말로 수익성이 없다고 여겨져 12 세 나이에 고기가 되기 위해 도축 당했습니다.

The KRA must implement and fully fund a comprehensive and humane aftercare system to protect all former racehorses in Korea, especially those who will become as vulnerable as Blue Fantasy.

한국마사회는 한국 내 모든 경주마들, 특히 블루 판타지처럼 위기에 처하게 될 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The 3% of prize money would be a progressive retirement funding mechanism, recognizing that the horses earned this money and that this is proper compensation, like an employee pension plan.

상금의 3%는 진취적인 퇴역 자금조달 방법으로, 근로자의 연금과 마찬가지로 말들이 이 자금을 벌어들인데 기여한 것을 인지하며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Finally, the KRA must also unequivocally renounce horse slaughter.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는 확실하게 말 도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There can be no exceptions.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The KRA can't hypocritically be involv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romoting or subsidizing horsemeat for human consumption or processing horsemeat for pet food or rendering horse flesh for horse oil cosmetic products..

한국마사회는 말고기의 식용, 반려동물 사료 제조, 마유(말기름) 화장품을 위한 직간접적인 홍보나 지원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This should not be just another strategy to improve the KRA's damaged image.

이것은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It's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첨부> PETA's Recommendations for Precautions When Horses (Animal) Appear in Imaging Productions

말(동물)을 영상촬영제작에 출연시킬 경우 예방조치에 대한 PETA의 권장사항

Horses are extremely susceptible to injury and stress, and historically, horses are among the animals most frequently injured or killed when used for film and TV largely because they're prey animals who are easily frightened, and film and TV sets are not natural environments for them. Horses must be gently habituated to people, sounds, and environments.

말은 부상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쉽게 겁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말은 동물들 중에서도 영화와 TV에 이용될 때 가장 자주 다치거나 죽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말들에게 영화와 TV 촬영장 세트는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말들은 사람, 소리,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시켜주어야 합니다.

This is why it's essential for productions to have a horse *behaviorist* on set – someone who answers only to the director or the showrunners and knows horse behavior, meaning they can spot signs of distress that others might miss.

이것이 바로 영상 제작자가 촬영장 등에 '말 행동 전문가'를 두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말 행동 전문가는 감독이나 촬영책임자에게만 대답하고 말 행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고통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 best option of course is to avoid using horses at all, as even when precautions are taken, problems can occur.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론 최선의 선택은 말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That's why it's crucial that productions limit the number of horses used and, where possible, examine every scene to see if the use of live horses can be replaced with CGI or other special effects, and what other adaptations can be made. 그렇기 때문에 촬영제작에서 사용되는 말의 수를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모든 장면을 검토하여 살아있는 말의 사용을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또는 기타 특수 효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 example, PETA praised the producers of War Horse for taking our concerns about the use of animals on set seriously – the production used CGI (computer-generated imagery) for the most dangerous-looking scenes, a special track was built to help with the horses' footing, and breakaway ropes prevented tripping. 예를 들어, PETA는 'War

Horse'의 제작자들이 세트장에서 동물 사용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해당 제작자들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장면에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말의 발 디딤을 돕기 위한 특수경로를 사용해 이탈 로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However, it later came out that a horse died during transit. Horses also died during the making of productions such as HBO's Luck and Peter Jackson's 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 그러나 나중에 말이 운송 중 사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BO의 럭(Luck)과 피터 잭슨(Peter Jackson)의 호빗: 뜻밖의 여정(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과 같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말들도 사망했습니다.

While we urge productions to avoid using real horses altogether, the following precau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a decision is made to use them: 우리는 촬영 제작에 실제 말을 완전히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지만, 말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Productions should always have a horse-specific behaviorist on set - an objective professional (who doesn't have any financial interests in the production or have industry affiliations that would influence horse welfare decisions), who answers only to the director. A horse behaviorist will see signs of distress that others might miss, and is someone who understands horse mannerisms. 촬영제작현장에는 항상 '말 행동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전문가(제작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말 복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업계 관련이 없는 사람)는 감독에게만 대답합니다. '말 행동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고통의 징후를 볼 수 있으며 말의 행동습관 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 It's imperative that producers look carefully at each scene in which a horse is being used to ensure that no horse will be put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that CGI and other effects options are considered. 제작자는 말이 이용되는 각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CGI 및 기타 효과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Always ask questions about the training methods that are used to get horses to cooperate when on set and ensure that nonnegative reinforcement or punishment is used. 촬영 시 말이 협조하도록 사용되는 훈련 방법에 대해 항상 질문하고 부정적인

강화나 처벌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Production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companies that supply horses for the filming do not have a record of violating animal protection laws or have been reported to use cruel training methods. These companies should also have guarantees that the horses they use will have a safe retirement and are not sent to slaughter after their caree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제작사는 촬영용 말을 공급하는 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거나 잔인한 훈련 방법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안전하게 은퇴하고 도살장으로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 All horses should be appropriately and protectively shod for the specific scene. Horses must be gradually habituated to potentially frightening situations, such as noisy crowds or flapping flags, so as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startled, which can lead to accident and injury for both the horse and members of the cast and crew. 말은 소란스러운 군중이나 깃발이 펄럭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놀라 생길 수 있는 (말과 출연진 및 스태프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사고와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All horses should be appropriately and protectively shod for the specific scene they're filming. No cruel shoes, such as weighted shoes, should ever be used. 모든 말은 촬영 중인 특정 장면에 적절하고 보호용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무거운 신발과 같은 잔인한 신발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Horses must have sufficient rest periods between takes, including adequate access to water and shade. 말에게 물과 그늘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고 촬영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Films featuring battle sequences and explosions require special precautions to protect horses from unnecessary stress and risks of injury. Explosions and loud noises should be filmed separately and should never be set off with horses on set. 전투 장면과 폭발이 나오는 영화 등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폭발 및 시끄러운 소음은 별도로 촬영해야 하며 촬영장에 말과 함께 출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The use of cruel checkreins—which are often used in period pieces to extend the arch in a horse's neck and keep him/her from looking down, further endangering

horses—must never be allowed. 말의 목 구부림을 늘리거나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게 하는 등 말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시대극에 자주 사용되는 잔인한 제지 고삐(말이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하는 고삐)의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Spiked bits, harsh spurs and bridles, and uncomfortable saddle and tack should never be used. Crops and whips should be avoided as well, and if carried, should never be used on the horse. 뾰족한 조각, 거친 박차와 고삐, 불편한 안장과 압정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작물과 채찍도 피해야 하며, 무언가 운반할 일이 생길 경우 경우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Ropes and other dangerous and cruel techniques to trip horses to make them fall should be eliminated. 말을 넘어지게 하는 밧줄 및 기타 위험하고 잔인한 기술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말 복지 사업추진 및 중장기 전략

김진갑 한국마사회 보건총괄담당 부장



한국마사회 말 복지 사업추진 및 중장기 전략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김진갑 부장

목 차

1. 한국마사회 말복지 사업 추진내역
2. '22~' '26년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3. 말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목 차

1. 한국마사회 말복지 사업 추진내역

2. '22~'26년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3. 말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I. 한국마사회 말복지 사업 추진내역



1. 말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말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17년)

- 슬로건 : 말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내용 : 국내 말 보건복지분야 혁신을 위한 로드맵 제시

◆ '22~'26년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수립('21년)

- 내용 : 전략목표(5) 및 전략과제(20) 수립
- 말 보호강령 제정

◆ 경마수의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21년)

- 국제경마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의업무 개선 방향 제시

2. 한국마사회 말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한국마사회 말보건복지위원회 구성('14년)

- 말보건원장 산하 내부 수의사로 구성

◆말복지 6대 기본원칙 제정('14년)

- 수의사의 진료거부 금지
- 수의사가 말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요구
- 말 소유자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무
- 말 소유자의 예방접종 및 구충 의무
- 도구, 약물을 사용한 상해 행위 금지
- 수의사에 의한 말의 인도적 처리

◆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14년)

- 한국마사회 사업장 관리마 보건복지 향상 방안

◆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15년, 2회)

- 말의 통증 관리, 사양 및 계절별 관리 가이드라인 구체화
- 말복지를 고려한 경주전 약물검사제도 개선방안 논의

3.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신설 및 활동

◆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신설('19년)

- 말산업육성본부장 산하 위원회 승격 및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 위촉

◆ 말 및 1차, 2차 개정('17년, '19년, '20년) 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 말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 제시 (기아 갈증, 불편함, 고통 상처 질병, 정상적인 행동, 공포 스트레스)

◆ 경주마 교배, 번식분야 말복지 가이드라인 수립('21년)

◆ 경주퇴역마 말복지 가이드라인 수립('21년)

◆ 말복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20년, '21년)

-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생산자협회 대표 추가
- 서울경마장 관리사대표 추가

4. 경주마 복지 지원 사업

- ◆ 말복지를 위한 “치명적 손상마 ”에 대한 마사회 역할 강화('17년)
 - 치명적 손상마의 진단 비용, 안락사 등 비용 지원
- ◆ 전국 말 방역체계 구축('18년)
 - 전국 말 예방백신 접종 지원, 전국 말전염병 모니터링
- ◆ 부상 경주마 치료받을 권리 보장 프로그램 도입('18년)
 - 장기요양 및 경주부적격 진단마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무상 지원
- ◆ 한국마사회 말복지전문가 선정 및 운영('18년~)
 - 영국 경마시행체 및 복지단체 교류 근무 실시('19년)
- ◆ 경주마퇴역 TF 조직 신설('20년)
 -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사업 추진

5. 경주마 약물제도 개선

- ◆ 한국마사회 경주마 약물제도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16년)
 - 국제경주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및 5 CLASS 분류체계 도입
 - 상시 약물검사제도 도입
 - 경마와 생산, 발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SCREENING LIMITS 도입
- ◆ 경주마 약물 오남용 감소 대책 추진('18년)
 - 소염진통제 사용 총량 도입 및 관리로 오남용 방지
- ◆ 치료용 약물의 환경오염도 조사('21년)
 - 마사환경에서 범용 약물의 오염도 조사

6. 말복지 교육 및 콘텐츠 제작

◆ 말복지 교육 실시

- '18년 : 5회, 94명
- '19년 : 14회 435명
- '20년 : '22,000명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실시)
- '21년 : 7회 214명

◆ 말복지 교육자료 제작('18년)

- 말도 사람도 행복한 세상 만들기 (말복지 가이드북)
- 말에 대한 책임과 관리 의무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브로셔)
- 말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알아보기 (모션그래픽)
- 말복지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시리즈-13 : '19년)
- 말복지 홍보 리플렛 제작(말복지 가이드라인 소개 : '20년)

7. 말복지 국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

◆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동물복지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참가('17년)

- ONE HEALTH(하나의 복지,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을 위한 복지) 논의

◆ 영국 말복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18년)

- 영국말수의사회 주관 회의 참가로 7개 동물복지단체와 교류 실시

◆ 동물복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8년)

- DR. TIM PARKIN (영국 GLASGOW 대학 교수) : 경주로에서의 부상 발생 역학 및 예방
- DR. PETER C RAKESRAW (전 A&M 대학교 교수) : 산통 발생 원인 및 치료
- DR. 이혜원(독일 루드비히-막시밀리언 대학 동물복지연구소 박사) : 말의 행동 교정
- DR. PETER CURL (홍콩자키클럽 말복지담당 부장) : 말복지 개요 및 사회적 영향과 리스크
- 이학범 대표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내 현실 진단

◆ 홍콩 말복지 세미나 참석('19년)

- 주제 : 운동 기인성 열사병 및 혹서기 말복지

8. 말복지 분야 연구조사

- ◆ 경주중 치명적 손상마 위험 요소 분석('19년)
 - 굴건부위 치명적 손상 원인 분석
- ◆ 경주중 치명적 손상마 위험요소 분석 2차년도 연구 실시('20년)
 - 상완골 골절마에 대한 원인 연구
- ◆ 말복지 실태조사 최초 실시('20년)
 - 서울경마장 경주마 및 장수목장 육성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10대 개선과제 도출
- ◆ 2차년도 말복지 실태조사 실시('21년)
 - 제주목장 육성, 번식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경마관계자 말복지 인식도 조사 실시('21년)
 - 서울, 부경 말관리사 128명 조사 : 57.19점

목 차

1. 한국마사회 말복지 사업 추진내역

2. '22~' 26년 한국마사회 말복지 증장기 전략

3. 말복지 증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1. 말 보호, 복지 의식 향상

- 말복지에 대한 인식, 감수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판단

2. 말의 과학적 윤리적 활용 제고

- 말의 훈련, 이용 등에 있어서 과학적, 윤리적 기준 도입 필요성 강조

3. 경주마 생애주기 복지지원

- 말의 출생, 활용, 은퇴 이후까지 전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지원 필요성 강조

4. 말복지 가치의 기관 경영 내재화

- 말복지가 한국마사회 사업추진의 주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

5.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소통 강화

- 복지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유관기관, 국민과의 소통 중요성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1. 말 보호, 복지 의식 향상

- ◆ 온라인 기반 교육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운영
- ◆ 동물보호, 복지 교육 의무화 및 자격 면허 기준 반영
- ◆ 말관계자 인식도 조사 정례화 및 말복지 실태조사 고도화
- ◆ 말등록 및 이력관리 강화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2. 말의 과학적, 윤리적 활용 제고

- ◆ 말복지인증제 도입
- ◆ 말의 건강, 복지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 말복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 인도적 안락사 가이드라인 및 윤리적 처분 정책 수립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3. 경주마 생애주기 복지 지원

- ◆ 말 복지기금 조성
- ◆ 생애주기 중심의 경마, 육성분야 시스템 개선
- ◆ 경주마 치료, 재활, 휴양 지원제도 도입 및 조기 진단체계 구축
- ◆ 경주퇴역마 지원체계 고도화 및 말복지센터 설립, 운영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4. 말복지 가치의 기관경영 내재화

- ◆ 말복지,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내부규정 명문화
- ◆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기관경영 거버넌스 체계 정립
- ◆ 경주퇴역마 챔피언 호스파크 건립 및 명예의 전당 신설
- ◆ 동물복지 기반 사회공헌 체계 구축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

5.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소통 강화

- ◆ 중앙정부, 말산업특구, 관계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
- ◆ 말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및 캠페인 강화
- ◆ 말복지 전문인력 양성
- ◆ 해외 유관단체 참여 및 교류협력 강화

목 차

1. 한국마사회 말복지 사업 추진내역

2. '22~' 26년 한국마사회 말복지 중장기 전략

3. 말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Ⅲ. 말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말 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1. 한국마사회의 한계

- 경제적, 행정적, 입법적 분야의 한계

2. 정부의 협력 필요

- 말복지기금 조성, 말복지교육 의무제 도입 등 정부지원 절실

3. 입법을 위한 지원과 협력 필요

- 말복지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 활동 지원

4. 유관기관의 설득과 협력의 어려움

- 경마시행 관련 생산자, 마주, 관리사, 기수 등 관계자의 이해와 설득의 어려움



KRA 한국마사회

감사합니다

퇴역 경주마 전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조희경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퇴역 경주마 전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 한국 말산업 현황

〈말 관련 업종별 현황〉

| 년도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
| 업태 | 말 생산업 | 승마 시설업 | 개인 사육자 | 말 생산업 | 승마 시설업 | 개인 사육자 | 말 생산업 | 승마 시설업 | 개인 사육자 | 말 생산업 | 승마 시설업 | 개인 사육자 | 말 생산업 | 승마 시설업 | 개인 사육자 |
| 개수 | 717 | 479 | 713 | 734 | 512 | 848 | 771 | 466 | 864 | 704 | 459 | 939 | 689 | 468 | 979 |

〈말 사육 현황〉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총계 | 경주용 | 총계 | 경주용 | 총계 | 경주용 | 총계 | 경주용 | 총계 | 경주용 |
| 27,116 | 7,732 | 27,210 | 7,303 | 27,243 | 7,808 | 27,246 | 8,129 | 26,525 | 8,332 |

〈말 생산 및 경주마 퇴역 현황〉

| 년도 | 생산 두수 | 경주마 등록 두수 | 퇴역 건수 | 퇴역신청시 전환용도 | | | 퇴역시 연령 | | | |
|------|----------|-----------------|----------|------------|-----|-----|------------------|----------------|--------------|-----------|
| | | | | 용도 미정 | 승용마 | 그외 | 4세 이하 | 5~7세 | 8~10세 | 11세 이상 |
| 2021 | 1,248 | | 1,550 | 971 | 480 | 99 | 1,141 (73.6%) | 401 (25.9%) | 8 (0.5%) | 0 |
| 2020 | 1,328 | | 1,139 | 683 | 376 | 80 | 866 (76.0%) | 258 (22.7%) | 15 (1.3%) | 0 |
| 2019 | 1,366 | 1,128 | 1,230 | 687 | 422 | 121 | 926 (75.3%) | 297 (24.1%) | 7 (0.6%) | 0 |
| 2018 | 1,583 | 1,497 | 1,088 | 603 | 339 | 146 | 796 (73.2%) | 287 (26.4%) | 5 (0.5%) | 0 |

○ 한국에서의 경마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군마생산 및 세수확보 정책에 따라 도입되었음. 해방이후 조선총독부가 이식한 국가독점의 도박산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바, 생명체인 말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함.

〈말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같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경마산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마에 동원되는 말의 복지와 퇴역 후 관리 등은 무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 악화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과정에서의 퇴역 경주마 학대 사망 사건은 이같은 사회적 무관심과 방치, 생명경시풍조가 빚어낸 참사임.

○ 말에 대한 상업적 착취는 통제되지 않은 과잉생산, 마사회 입사전 순치훈련 및 사회화 미비, 학대에 가까운 경주마 관리, 2~3년 단기간 집중적인 혹사, 퇴역후 방치 등 말의 전생애에 걸쳐 ‘마지막 한방울까지’ 이윤창출을 목표로 진행

- 말 관련 보험사기 사건, 제주도의 ‘퇴역경주마 펫사료화 정책’, 불법 도축, 말 학대사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 경마 과정에서의 말 학대행위와 관련 법조항

| 구분 | 사례 및 내용 | 관련 조항 | 처벌 조항 |
|----|--|---------------------------------------|--|
| 훈련 | ○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상해 - 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가혹한 훈련 -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여 다리를 부러뜨림 - 아픈 다리에 압박 테이핑하여 부러지기 쉽게 만들거나 바늘로 터질 때 까지 찌름 / 망치로 때림 / 다리를 묶어 포크레인으로 찍음 - 안구에 투약해 실명 유도 - 신경이 닳을 때까지 편자를 짧게 깎아 다리를 절게 함 | 제8조 2항 제1호 (죽음에 이르는 경우 제8조 1항 적용), | 제46조 제2항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훈련 과정에서의 신체적 고통 및 급이 중단 - 발주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살이 갈라지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채찍으로 때리고 굶김 (발주대에 서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함) | 제7조 제1호 | 처벌조항 없음 |
| | |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 제46조 제2항 제1호 |
| 출전 | ○ 적절한 휴식 및 먹이 미제공 - 경주에 투입된 경우 휴식이 필요하나, 성적이 낮아도 상금이 수령이 가능해 휴식이나 먹이 급여 없이 재출전 | 제7조 제1호 | 처벌조항 없음 |
| | ○ 의료검사 방해 행위 - 출전 당일 진행되는 검사 전, 말을 인위적으로 흥분시켜 다리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말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함. (마방에서 동물병원까지 가는 길에 줄로 때리거나 배를 걷어차는 방식) | 제8조 제2항 제4호 | 제46조 제2항 제1호 |
| 퇴역 | ○ 부상당한 말 보험처리 후 요양 보내지 않고, 안락사 시켜 소각하거나 말고기로 유통 | | |

○ 경주마 전생애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경마를 통해 연간 1조 8천억 수준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와 년 8조 가까운 매출에 2천억 수준의 순이익을 내는 한국마사회가 1차적 책임주체임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는 것이 중요

○ 마사회가 2021년말 <2022~2026년 말복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말보호, 복지 의식 향상 △말의 과학적 윤리적 활용 제고 △경주마 생애주기 복지 지원 △말복지 가치의 기관 경영 내재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소통 강화 등 전략과제의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

- 전략과제 세부내용에 있어 △말등록 이력관리 강화 △말복지 인증제 도입 △말 건강, 복지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경주마 치료, 재활, 휴양 지원제도 도입 및 조기 진단체계 구축 등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마권 온라인 발매 법제화를 연계하는 등의 접근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관련 예산은 경마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마의 핵심 주체인 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2022~2026년 말복지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제정한 <경주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퇴역 경주마에 대한 책임을 마주에게 두면서 '재정적인 구호역량을 벗어난 경우' '인도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퇴역 경주마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임

○ 경주마 전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말 생산업자에 의한 과잉생산 통제 △각인순치등 육성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지원 △경주마 입사후 적절한 훈련 보장 △약물사용 규제, 치료 및 휴양시스템 강화 등 경주마 복지 관리 △퇴역후 승용전환 지원 △퇴역 경주마 보호시설 설립 △퇴역 경주마 이력 관리 등 실제 '말'의 관점에서 필요한 복지시스템을 고민하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

경주마를 보호해 줄 단 한 줄의 법률 조문이 있는가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경주마를 보호해 줄 단 한 줄의 법률 조문이 있는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교수

경주마 생애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토론 주제를 보면서, 국내에 경주마를 보호 해주는 단 한 줄의 법률과 행정의 주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보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모든 동물 중에서 버려진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지침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제2021-88호)이 정해져 있어 그 중성화지침을 개정하면서 행정예고가 되어 있어 동물보호 행정에 일부 들어와 있다. 또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운영방법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제2021-89호)과 같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이타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 보호소마저 그 운영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말에 관한 가장 하위 법령인 단 한 줄의 고시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반려동물 생산업에는 각종 준수 사항이 시행규칙에 담겨 있다가 이번에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말 산업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의 내용이 없다. 그런 면에서 경주마로 뛰고 난 5살 전후부터, 퇴역하고 난 이후는 이들 퇴역마를 보호해줄 단 하나의 법률도 없다. 나아가 모든 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법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만큼 동물보호 행정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KBS 드라마에 대여되는 동물에 대해서, 말 대여업체에서는 “오늘 죽어도 상관 없는 말들을 투입한다”고 언론기사에서 보도되었는데,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폐마”라는 개념이 경마산업에 있는 것이 놀랍다. 마사회가 마련한 “경주 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은 7조에서 입양자, 위탁관리자에 대해 “적정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9조는 퇴역 경주마의 새로운 경력을 위해 “용도개발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사양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지침이 까미를 전혀 보호해준다고 할 수 없다.

〈표1〉

| | 개, 유기동물, 길고양이 | 실험용동물 | 전시동물 | 경주마 |
|----------|---|------------------------|------|--------------------------|
| 법규유무 | ○ | ○ | ○ | X |
| 행정주체의 유무 | ○ | ○ | ○ | X |
| 윤리유무 | 유기견, 번식견의 식용금지, 반려견과 식용견의 구분을 허용하는 기존의 정부정책의 변화 | 각종 사육견의 실험금지 및 은퇴 후 보장 | 식용금지 | 경주마도 식용으로 허용하고, 권장하는 행정. |

퇴역 경주마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으면서, 펀드뿐 아니라, 이를 위한 “복지체계”를 위해서는 펀드뿐 아니라, 법과 복지를 주관할 행정 및 감독의 주체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체제가 잡혀져있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또 마사회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 내용이 표준(standard)를 가지기에 그 구체성도 없고, 말의 생리나 행동적인 요구가 반영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표준이나 규범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외전문가들에 의하면 말산업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말에 대한 표준, 더러브렛 산업에 대한 표준과 이를 확실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복지 가이드라인이 어느 것을 위한 표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마사회 말 복지가이드라인 9(나): “말관계자는 말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보장해주며, 말에게 적합한 크기의 마사 및 마방공간을 제공하고, 청결, 통풍, 온도 및 습도 유지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위의 표에 나오는 가이드라인, “나”항은 말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을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의 생리에 맞는 물의 양과 공급방법을 무엇인지, 사료는 어떤 종류의 사료를 얼마나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농촌 경마장에서 말에게 돼지 사료나 개사료를 먹이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또한 번식업에서 교배년령, 교배회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경마기준도 너무 더운 날씨에는 경마를 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가임나이는 6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내 지침에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다.

이런 내용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에 법률로 정해진 나라들의 사육 지침과 비교가 된다. 마사회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마산업을 일으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마 단체로 부터 최고 수준의 관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복지제도에 관한 한 아직 기본이 갖추어있지 않다.

경주마산업에 관련한 아무런 “윤리”가 제도에 담겨져 있지 않다. 년8조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사력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수년을 위해서 경마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용도폐기목적으로 동물사료 또는 말고기로 도축되는 것은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참고로 국내동물제도에 반려동물의 경우 그 번식으로 노화가 되더라도 용도폐기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경비견, 탐지견, 장애인 안내견 등 인간

을 위해서 사육된 동물의 경우, 이를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군에서 경비견의 용도 폐기목적으로 각국 실험실에 기증하는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 이들을 분양하여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윤리가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동물을 식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동물도 사람을 윤리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동물로 알려진 악어마저도 상처 입은 자신을 치료해준 인간을 평생의 친구로 대접한다.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과 마육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

김란영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과 마육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김란영 교수

2011년 3월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5개년 단위의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매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말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4개소의 말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말 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말 산업 특구 산업 분야는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사업과 질병 방역으로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당신이 먹고 있는 말고기 99% 이상이 경주마와 연관이 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마육산업은 경주마인 제주마, 제주산마(한라마), 더러브렛 세 종류의 말이 도축 두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육마 전용으로 태어나는 말은 거의 없다. 경주마로 태어나 활용되지 못하는 말 또는 경주마에서 퇴역한 말이 전문 비육 농장으로 유입되어 비육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주마 중 제주마와 제주산마(한라마)의 경우 비육 과정을 거치는 반면 더러브렛의 경우에는 비육 효율이 낮아 대부분 비육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고 바로 말고기로 유통된다.

수입된 비육말은 판로와 채산성이 없어 말고기 대부분은 경마에 활용되지 못하거나 퇴역한 말이다. 처음부터 식용만을 목적으로 말을 사육하여 말고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경주에서 도태 또는 퇴역하거나 승용마로 활용되지 못하여 남는 말을 말고기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 경주마들인 더러브렛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말고기 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도축되는 식육 말의 비중이 연간 300톤 수준으로 전국 80% 이상을 차지하여 말고기의 소비와 유통이 제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42여 곳이었던 말고기 식당은 2020년 기준 32개소로 2년 사이 10개 식당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0월 2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주 퇴역마를 활용한 펫사료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경주마는 현역으로 활동 당시 항생제 처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호르몬 투여가 되고 있어 식품용 마육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로 제주도의 대규모 펫사료 공장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경주마를 펫사료에 활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퇴역 경주마 더러브렛은 20만 원 정도에 팔려 도축되어 고온멸균 처리 후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반려동물의 사료로 만들어 유통되고 있다. 인간에게 유해하면 반려동물에게도 유해하다. 반려동물에도 간, 신장 질환을 일으킨다,

경주마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마사회의 '2019년 말산업 연구 심포지엄'에서 '도축장에서 발생한 학대 행위가 문제인가?' 아니면 '퇴역 경주마의 도축 자체가 문제인가?' 당시 경주마 학대 문제의 본질을 다루었다. 본질은 학대 행위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경주마가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이다. 경주마에 대한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져야 할 말산업, 경마산업 관계자들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질주했던 경주마가 퇴역 후 72시간도 안 되어 도축되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 학대 사건을 외면하는 현실을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2014~2018년, 5년간 한 해 퇴역한 1,500필의 더러브렛 중 약 600필의 말이 승마용으로 신청했다. 그들 중 실제 승마용으로 이용하는 퇴역 경주마는 몇십 마리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용도 미정인 308마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상용 시험용 교육용 번식용 등용도 신청을 하여도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태조 이방원 촬영에 동원된 퇴역 경주마 까미(예명)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퇴역 경주마의 삶의 모습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까미의 본명을 모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언제까지 '말 이력제의 활성화'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미 정착되고도 남을 '말 이력제'를 마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모든 경주마의 전 생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중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인간의 유희와 오락에 이용되고 있는 말 산업의 두 축인 경마산업과 승마산업에 활용되었던 말의 복지체계 구축은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100년의 한국 경주마 역사에서 경마산업의 주역인 경주마가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 믿었던 대중은 소모품으로 전락한 퇴역 경주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마산업을 정육점이라 꼬집는다. 축산업으로 전락한 경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고자 한다면 마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퇴역한 경주마에 '저 말은

제주도로 간다.’라는 은어가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말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제주
도에서 도축되어 말고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말의 고장’ 제주도는 말에게는 ‘죽음의 고
장’이라는 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마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
고 포기하고 미룬다면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이 짊어지게 된다.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인 우리의 의무이다. 미래세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
상에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으자.

생명 아닌 소모품이었다… 퇴역 경주마의 기구한 운명

고은경 한국일보 애니로그랩장

생명 아닌 소모품이었다… 퇴역 경주마의 기구한 운명

고은경 한국일보 애니로그래프장

최근 KBS드라마 '태종 이방원' 속 낙마 장면에 동원된 말이 퇴역 경주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장면이 실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촬영기법이 관행처럼 활용되어왔다는 것에 충격은 더 컸다. 이에 더해 퇴역 경주마라는 사실은 평생 사람을 위해 뛰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락을 위해, 드라마 한 장면을 위해 이용됐다 사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는 퇴역 경주마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한 사례다. 1년에 퇴역하는 경주마는 1,400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삶은 드라마에 동원됐던 퇴역 경주마 '까미'(예명)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퇴역 경주마의 용도를 확인한 결과, 약 40%는 승용, 번식용으로 활용되고, 50%는 질병, 부상 등으로 도축됐으며 나머지 10%는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40%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결국 도축됐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주마가 퇴역하면 관상용 번식용 승용 교육용 등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마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용도' 비율은 2016년 5%(70마리)에서 2020년 22.5%(308마리)로 늘었다.

경주 못 뛰면 애물단지? 이윤 추구 경마 문화 영향

경마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주마들은 번식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고기, 반려동물 사료로 쓰이기도 하고 촬영장, 꽃마차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이마저도 안되면 그냥 폐기처리 되고 있는 게 경주마가 처한 현실이다. 말산업 정보포털 호스피아에서 경주마 이력에 극히 일부만 검색해봐도 경주마의 고된 삶과 퇴역 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함박미소', '트리플매직', '환한미소' 등은 경주마로 뛴 기간이 고작 1~3년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주마로 뛰는 동안 받은 치료는 적게는 36건에서 많게는 150건, 식용사용 금지약물 투약내역도 10여차례가 넘는다. 그리고 경주마 등록이 취소된 후 5~6개월 만에 도축됐다.

이는 우리나라 말 산업 문화가 이윤을 추구하는 경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익을 내는 말 이외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당장 수익을 내야 하니 경주마에게 치료와 휴식 대신 약물 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퇴역 경주마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다. 취재 도중 한 마필관리사는 "다친 경주마가 완치 후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성심 성의껏, 수

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진료한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퇴역시킨다”고 설명했다. 더해 “마주가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주마 불용’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더욱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윤 위주의 말 산업은 소수의 ‘뛰어난’ 경주마 탄생을 위해 과잉 번식의 결과를 낳고, 이는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카페에 검색만 해봐도 퇴역 경주마는 100만~3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내 경주마 실태 폭로에 참여했던 필립 샤인 페타 정책부서 수석 연구이사는 “한국에서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번식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번식과 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도 말 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2019년 페타의 폭로 이후 경주마가 처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다.

사육 두수 고민하고 복지 체계 구축해야

기구한 운명에 처한 경주마를 위해서는 먼저 사육두수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국마사회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모든 말을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고, 경주마의 모든 생애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 제주비건 등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인 경주마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주마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의 전제조건은 동물 복지 보장이다. 현재는 망아지 때 교육 방식부터 경주마로 활동하는 기간과 퇴역 이후 처우까지 동물 복지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립 샤인 페타 정책부서 수석 연구이사가 제안한 마사회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경주마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 마사회뿐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주마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생츄어리(보호시설)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